

중국,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곧 선포

통보 없이 진입시 전투기 출격 필리핀·베트남 등 EEZ와 겹쳐 내일 靑안보회의서 공방 벌일 듯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해당 해역에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준비 중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해당국이 자국 영토·영공을 방어하려는 구역으로, 안보 목적을 내세워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말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국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들어오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한 소식통은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기가 미군 배치와 이웃 국가들과 외교 관계 등 지역 안보 상황에 달렸다면 “미군이 지역 내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군사평론자 칸와디펜

중,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 선포 준비



스리뷰는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선포 시기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칸와디펜은 중국의 남중국해 ADIZ에 대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랑사군도) 우

디 섬(중국명 응싱 다오·永興島),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쩌엥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안 군도) 7개 인공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이들 섬 주변 200해리에 근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남중국해 ADIZ는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이미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와도

이 회의에는 에슈턴 커터 미 국방장관과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등 여러 국가의 안보 담당 관리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격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창 칸와디펜스리뷰 편집장은 “중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이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EEZ와 겹친다”며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 이들 국가도 자체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하이(上海)의 군사전문가인 니라송(倪樂雄)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7개 인공섬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토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해군 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지역적 긴장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1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양국관계를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로 다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앞서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결정 것으로 예상돼 남중국해 주변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3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일 “북한 비핵화, 말로 해선 안된다”

일본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대북 압박 예고

북중 고위급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미국·일본은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할 때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1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홍균 본부장은 회의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한미일 세 나라가 더 독려하고,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긴급하며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당

당 부위원장의 전날 방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지금은 방중 결과를 지켜보려 하며 방중 종료 후 평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에 6자회담 당사국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의미있는 대화에 오픈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어 그들이 진정 의미있는 대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장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 가능성을 탐색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특별대표는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과 오랜 유대를 가진 중국이 6자회담 과정에서 약속한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고 대북제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부터),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소녀상 치우기 전엔 100억 쥐선 안돼”

日 자민당 의원들 주장

한일 합의에 따른 군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안에서 주한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합의이행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경제협력본부 등의 합동회의 때 북부의 출석 의원으로부터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엔(약 107억 원) 출연을 선행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

왔다.

이 자리에는 자민당 국회의원 약 20명이 참석, 외무성 간부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측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한국이 설립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판의 안병·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됐다.

일본 집권당 일각에서는 재단 제공과 소녀상 이전이 패키지로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올림픽 앞둔 브라질, 지카 공포 잠재우기

개최지 변경·연기 주장 반박

브라질 당국이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지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세계 각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리우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설명회를 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카를루스 아르투르 누스만 브라질 올림픽위원회장은 “경기장을 포함해 모든 올림픽 시설에 대해 날마다 방역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카 바이러스

스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스만 위원장은 “우리의 임무는 선수와 관광객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방역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올림픽위의 의료 부문 책임자인 주앙 그란제이루는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와 탕기 열병, 치쿤구냐 열병을 옮기는 ‘이집트 숲 모기’의 활동이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확인하게 되어도 누스만은 “확실했다”면서 리우 올림픽 연기 또는 개최지 변경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

팔루자 탈환전...IS, 민간인 불모 잡아

이라크 정부군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거점 팔루자에 들어가면서 도시에 갇힌 민간인의 안전을 두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IS가 민간인 수만여 명을 인질로 삼아 반격할 기세여서 팔루자에 진입한 이라크군이 본격적인 시가전 개시를 앞두고 공격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이 인용한 유엔난민기구(UNHCR) 집계를 보면 이라크군이 팔루자 탈환 작전에 나선 지난 일주일간 팔루자에서 탈출한 민간인은 6247명, 3700여 명이 이른다.

하지만 이는 탈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팔루자에 생활하던 민간인

5만여명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규모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민간인 5만여명은 IS가 이라크군에 맞서는 데 내세울 인질로 삼아 쓰일 위험에 처했다. 이는 IS가 이라크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한 전략으로 이라크 정부군이나 동맹군들도 상황이 재연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IS가 벌여 민간인 수백여 가족을 팔루자 시내 중심부에서 인질로 삼아 사용했다는 UNHCR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이라크 정부군은 팔루자를 탈출하려는 민간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이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지구 3층 상가건물매매
노대동 광주은행 뒷 코너자리

◆ 토 251평, 건 431평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고급오피스텔 룸 - 13개)

◆ 보 1억6천, 월 1,500만 (용 14억)

□ 매가 → 28억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 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
→ 토 211평, 건 606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원비, 4차선 도로 접
→ 법원 조대 부근, 임대객적 있음
□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

□ 나주 경현동 (3층 상가 건물)
→ 토 450평, 건 627평
→ 지하 (부페) 1층~3층 연수원
→ 금성산 내 위치, 관광객 많음
□ 감정가 30억 - 최저가 7억

□ 서구 화정동 (툼 나이트)
→ 토 800평, 건 2567평
→ 광천 터미널 앞, 나이트 운영
□ 감정가 140억 - 최저가 50억

□ 북구 운암동 (5층 상가 건물)
→ 토 66평, 건 194평
→ 지하음식점 1층~3층 (전71매) 4~5층(사무실)
→ 운암동 공구거리, 광고효과 좋음
□ 감정가 7억4천6백 - 최저가 5억9천7백

□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원비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5천

□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
→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 사무실)
→ 재석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감정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 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62-511-7800 010-6670-9800